



주 제:	“고통과 희망”	“사순 제 2 주일”	2010 년 2 월 28 일
복음 묵상:	[루가 9,28 ~-36]	[창세 15,5-12.17-18]	[필립 3,17-4,1]

사순절은 극기와 희생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희생과 고통, 인내와 양보, 극기와 보속 그리고 회개와 같은 말을 떠올립니다. 사순 제 2 주일인 오늘 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인내와 극기의 목적이 바로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영광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며 기다리고 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 그 무엇을 영광이라 표현합니다. 그 반대로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 무엇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하고 싶고 영광은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는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영광이 무엇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간들을 따라 다닙니다. 인간들이 영광을 바라고 있는 한 이 영광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고통은 인간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면 영광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바라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 갈 지라도 영광에 대한 바람은 인간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인간들을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영광을 바라는 희망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지만 또한, 이 고통을 이겨 나갈 용기와 인내를 주는 것은 또한 영광에로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고통은 인내하기가 쉽지만 좌절감이 동반하는 고통은 두려움까지 가세를 하고 또, 허무함마저 따라 옵니다. 고통을 이겨야겠다는 의미를 상실한 채 고통에 끌려 다니고 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제 2 주일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영광의 한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산 김상호 신부님 강론중에서)

**가족 동점 및 기도 요청**

- 주 성숙 리따 자매님이 지난 수요일 한국에 계신 부친이 위독하시다는 급보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길 기도중에 꼭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베네딕도 형제님이 아직도 완쾌되지않은 상태에서 회복중에 있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도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빌어 주십시오.
- 김순덕 카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및 미사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성경 공부 개강 : 3월 3일(수)  
오전반 : 오전 10시 / 오후반 : 오후 7시 30분
- 성모 신심미사 : 3월 6일(토) 오전 10시
- 회아와 함께 하는 사순 음악피정  
일시 ; 3월 10일 (수) 오후 7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회아 (세레명; 히야친타)” 양이 음악 피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1분 명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요.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이 있으면  
행복보다는 불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이룰 때  
느끼는 성취감, 기쁨,  
이런 감정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돈이 많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값싼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수 없지요.

진정한 행복은  
힘든 시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 속에 있지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

“No one who se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to what was left behind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